

음악 용어

Musical Terms



octave 옥타브

어떤 음에서 완전 8도에 있는 음으로, 예를 들면 '도'에서 높은 '도'까지를 1옥타브라고 해요.

예)



chamber music 실내악

군주나 귀족을 위해 소수의 악기로 구성된 클래식 음악의 한 형태로 100년 넘게 주로 아마추어 연주자들에 의해 그들의 가정에서 연주되었으며, 이후 그 공연이 콘서트홀로 옮겨졌죠. 하이든이 현악 4중주를 고안했으며, 18세기에는 모차르트와 베토벤 등이, 그리고 19세기에는 슈베르트, 슈만, 멘델스존, 브람스 등이 실내악 발전에 이바지했어요. 연주자의 수에 따라 2중주, 3중주, 4중주 등의 명칭이 붙는답니다.

symphonic music 교향악

관악기, 타악기, 현악기 등이 함께 연주하는 곡인 관현악을 위해 만들어진 음악을 말하며, 대부분 대규모의 관현악단(오케스트라)에 의해 연주돼요.

 **major** 장조

일반적으로 '도'로 끝나는 곡으로, 밝은 느낌이 나요.

 **minor** 단조

일반적으로 '라'로 끝나는 곡으로, 장조에 비해 우울한 느낌이 나요.

 **D** 도이치 목록


슈베르트의 곡 제목 끝에 붙는 'D. 숫자'로, 예를 들어 관악 8중주 F 장조는 Wind Octet in F Major, D. 72로 나타내요. 이때 D는 슈베르트의 작품을 가능한 작곡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사람의 이름인 오토 에리히 도이치의 이름을 딴 거예요. D의 뒤에 오는 번호는 도이치가 슈베르트의 작품을 정리한 번호예요.

 **cantata** 칸타타

악기 반주가 있는 성악곡의 한 형식인 칸타타는 '노래하다'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cantare에서 유래했어요. 악기 반주가 있는 독창과 중창, 합창으로 구분되는 성악곡 형식으로, 가사에 따라 세속(실내) 칸타타와 종교적인 내용의 교회 칸타타가 있어요. 노래 전체가 독창만으로 된 것도 있고, 합창만으로 된 것도 있죠.

 **sonata** 소나타

악기를 사용하여 연주하는 음악 형식의 하나로, '연주하다, 올려 퍼지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이탈리아어 sonare에서 유래했어요. 기악을 위한 독주곡 또는 실내 악곡으로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점이 성악곡인 칸타타와 비교되는 형식이예요. 형식은 하이든에 의해 확립되었고, 모차르트에 의해 발전해서 베토벤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해요.

 **variation** 변주곡

하나의 주제가 제시되고 선율이나 리듬, 조성 등을 변형해 나가는 기악곡을 말해요.

● **étude** 연습곡

독주 악기를 연습하기 위해 작곡된 음악곡으로, 쇼팽은 27곡의 연습곡을 작곡했어요.

● **concerto** 협주곡, 콘체르토

독주 악기와 관현악을 위해 작곡된 기악곡을 말하는데, '경쟁하다, 협동하다'를 의미하는 concertare에서 유래한 거예요. 관현악단이 악기 독주자와 함께 연주하는 곡으로, 콘체르토는 대부분 3악장으로 되어 있어요. 독주 악기가 무엇이나에 따라 어떤 협주곡인지가 결정되죠. 독주 악기가 피아노이면 피아노 협주곡, 바이올린이면 바이올린 협주곡이 돼요.

● **nocturne** 야상곡, 녹턴

조용한 밤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서정적인 피아노곡을 말해요.



● **opus** 작품 번호

opus는 '작품'이라는 뜻으로 작곡가가 쓴 곡의 순번을 나타내는 거예요. 클래식 음악에 이름과 번호를 매길 때는 작품 번호와 곡의 종류(교향곡, 환상곡, 협주곡 등) 등을 따지는데, 작품 번호는 op.로 줄여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컨대, 작곡가가 맨 처음 작곡한 소나타는 Sonata, op.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상곡을 작곡하면 Fantasia, op. 2, 그리고 세 번째로 다시 소나타를 작곡하면 Sonata No. 3, op. 3가 돼요. 헨델, 하이든, 모차르트의 작품에도 op.를 붙인 것이 있으나 중요시되기 시작한 것은 베토벤 이후부터예요. op.는 출판 시기별 순서이고, D는 작곡 시기별 순서로 정리한 거예요.

● **rondo** 론도

주제가 삽입부(다른 가락이 여러 가지로 삽입)를 사이에 두고 여러 번 되풀이되는 형식의 음악을 말해요.

예) A(주제) - B(삽입) - A(주제) - C(삽입) - A(주제)

● **prelude** 전주곡

원래 '전주곡'은 본격적인 음악작품이 전개되기 전 '도입' 역할을 하는 짧은 건반악기용 기악

곡이지만 19세기에 들어 쇼팽이나 리스트, 드뷔시 등의 작품을 통해 도입의 의미보다는 사실상 하나의 독립된 악곡을 형성하게 되었어요.



overture 서곡

보통 오페라(가극), 연극, 발레 등 공연 시작을 알리는 역할로, 막을 열기 전이나 중요한 부분을 시작하기 전에 연주하는 기악곡을 말해요. 프랑스어로 opening을 뜻하는 ouverture에서 유래했어요. 극 내용이 음악에 나타나 있어 하나의 독립적이고 완성된 음악곡이에요. 따라서 전주곡(prelude)보다 전체적 비중이 좀 더 크죠.

requiem 레퀴엠, 진혼곡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기독교 예식으로 연주하는 미사곡으로, 정식 명칭은 '죽은 이를 위한 미사곡'이라고 해요. 미사곡은 일정한 순서대로 곡을 연주하게 되는데, 첫 곡이 '안식'을 뜻하는 '레퀴엠'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죠.

movement 악장

소나타 · 교향곡 · 협주곡 따위에서, 여러 개의 독립된 소곡(小曲)들이 모여서 큰 악곡이 되는 경우 그 하나하나의 소곡을 악장이라고 해요.

rhapsody 랩소디, 광시곡

랩소디는 원래 서사시의 한 부분이나 서사시적 부분의 연속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서사적이고 영웅적·민족적 색채를 띠는, 일정한 형식 없이 자유로운 환상 풍의 악장으로 만든 화려한 악곡을 말하죠.

a cappella 아카펠라

악기 반주 없이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이뤄지는 합창곡이에요.

